



새로운 조경수

후피향나무속

Ternstroemia

102

후피향나무의 결실 (제주도, 8월촬영)



김사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종류와 생육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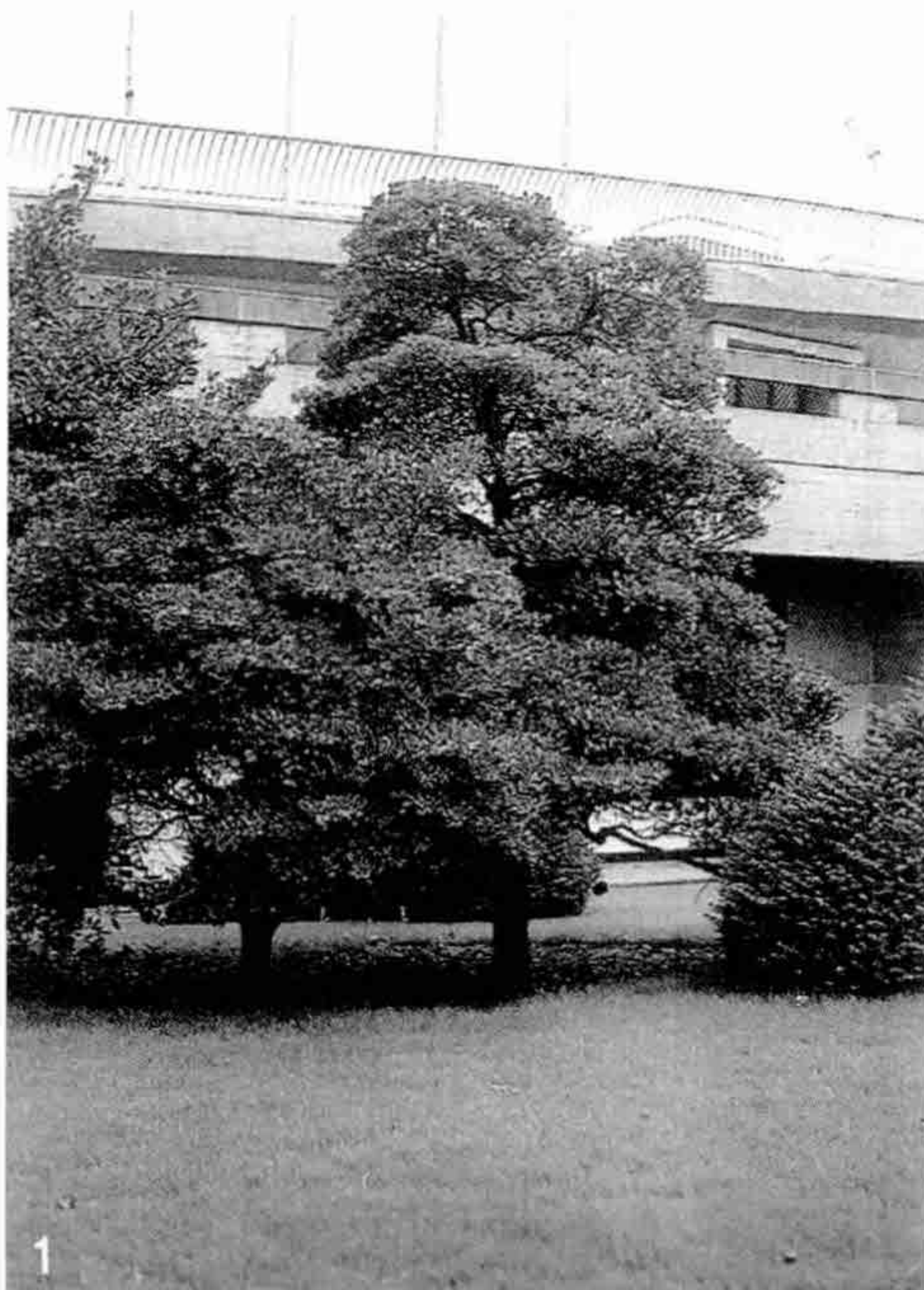
차나무과(*Theaceae*) 후피향나무속(*Ternstroemia*)에는 전세계에 약 100여종이 있으며, 주로 아시아와 미국의 난대 및 아열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일부는 아프리카에도 분포하고 있다. 전부 상록활엽수로 교목도 있고 관목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남부해안의 도서와 제주도에 후피향나무(*Ternstroemia japonica*) 1종만이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백색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황색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으며, 미국에서는 황색 꽃이 피는 것을 황색후피향나무(*Ternstroemia gymnanthera*)라 하여 후피향나무와 구분하고 있다. 후피향나무속의 수종들은 내한력은 약한 편이지만 내공해력, 내건력, 내풍력, 내염력 등이 강하여 우리나라 온대 남부 이남지역으로 동해(凍害)의 염려가 없는 지역이면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하고, 특히 토심이 깊고 비옥하고 벌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 (경남 진주시, 전남 순천시, 광주시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표1〉 후피향나무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후피향나무	<i>Ternstroemia japonica</i> THUNB	モッコク	Ternstroemia
황색후피향나무	<i>Ternstroemia gymnanthera</i> SPRAGUE.	"	"
소엽후피향나무	<i>Ternstroemia gymnanthera</i> var. <i>subserata</i> MAKINO	ヒメモッコク	-

〈표2〉 수종별 생육특성

수종명	가지와잎	꽃과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후피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활엽수소교목으로 수고 8m, 직경 20cm 정도자람 새로 나온 가지는 윤기가 있는 붉은색으로 아름답다. 가지 앞 등에 털이 없음 잎은 호생하지만 가지끝에서는 총생함 잎은 도란상, 장타원형이고, 원두 또는 둔두, 설저며, 길이가 3~7cm, 넓이 1.5~2.5cm임 잎의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황록색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음 잎자루의 길이는 2~8mm로 붉은 빛이 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양성화로 6~7월에 백색으로 피며, 엽액에 달려 아래로 처짐 꽃잎은 도란형으로 길이가 5~8mm며, 수술은 많고, 자방은 구상난형으로 털이 없고 2실이 며, 2개의 암술주두가 있고, 꽃향기가 남 열매는 둥글고 길이는 1.2~1.5cm며, 10월에 붉게 익음 열매가 익어 상부가 갈라지면 1실에 붉은 종자가 5개씩 들어있다. 종자의 평균발아율은 70%, 10 당 입수 14,000개, 1kg당 28,000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남부 해안의 각 도서 지대와 제주도 에 분포 일본, 중국, 인도에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대 남부 및 난대지역으로 토심이 깊고, 비옥하고 별이 잘 드는 양지에 서 잘 자람
황색후피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지와 잎의 특징은 거의 후피향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열매의 후피향나무와의 차이점은 꽃이 황색이고,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면 검은 종자가 나온다는 것임 	"	"
소엽후피향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후피향나무의 변종으로, 잎이 작고 잎상부의 가장자리에 거칠은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대자색을 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열매는 황색후피향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품종 	"



1. 황색후피향 정원수
2. 황색후피향나무의 꽃

※1,2번의 사진은 '庭木と縁化樹'에서 옮긴것임.



3. 후피향나무 조형목
4. 후피향나무 자연수형(제주도)
5. 후피향나무 겨울잎(남부산림연구소, 12월촬영)
6. 후피향나무 개화광경(남부산림연구소, 7월촬영)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후피향나무는 상록수로 일년 내내 짙은 녹색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새순 때는 가지, 잎, 잎자루 등이 모두 붉은 색을 띠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매우 아름답다. 여름(7월)에는 엽액에 백색 또는 황색의 작은 꽃이, 가을(10월)에는 붉게 익은 작은 열매가 나뭇가지에 가득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모양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가을에는 잎이 청동색으로 변하는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정경을 제공하여 준다.

수형은 전지·전정으로 마음대로 조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의 크기에 따라 나무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 조경수로서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고급수종이다. 일본에서는 정원수, 공원수, 경관수, 생울타리, 조형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남부지역의 도시환경정비, 택지개발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녹지 환경조성용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번식 및 양묘방법

삽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실생묘보다 생장이 더디고 이식후 활착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종자로 번식한다. 파종에 의한 실생묘 양묘는 10월에 종자가 익어 벌어지기 시작 할 무렵 채취하여 2~3일간 그늘에서 말려 열매가 벌어지면 종자를 털어내어 손으로 비벼어 가종피(假種皮)를 분리시켜 수세(水洗)한 후 바로 추진모래와 잘 섞어서 저온 저장한 다음, 봄(3~4월)에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1~2일간 물에 담궈두었다 건져서 파종한다(가을에 직파를 하여도 무방함).

m²당 파종량은 51cc 또는 26g(약 500개)를 파종하면 평균 발아율이 70%이므로 m²당 발아기대본수는 350본, 득묘본수는 300본, 평균 묘고는 20cm가 된다. 상갈이 이식은 1년 거치하여 두었다 3년째 봄에 m²당 30본을 이식한다. 이식 후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식 전년 가을에 단근을 하여 주는 것이 좋고, 이식 후 2~3년간 거치하여 두는 것이 좋다. ☂